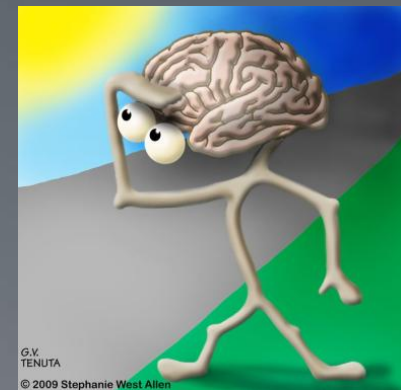

주간 뇌연구 동향

2013-12-27

한국뇌연구원

뇌융합연구부



01 국내외 뇌 과학 연구 학술 동향

1. 파킨슨병 유발 유전자가 뇌종양에도 영향을 준다

Genes Dev. December 15, 2013 27: 2642-2647;

Roles of PINK1, mTORC2, and mitochondria in preserving brain tumor-forming stem cells in a noncanonical Notch signaling pathway

Kyu-Sun Lee, Zhihao Wu, Yan Song, Siddhartha S. Mitra, Abdullah H. Feroze, Samuel H. Cheshier, and Bingwei Lu

Genes Dev. 2013 doi: 10.1101/gad.225169.113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규선 박사와 미 스탠포드 의대 루빙웨이 교수팀이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 PINK1 이 발암 유전자 노치에 영향을 미쳐 파킨슨병 뿐만 아니라 뇌종양의 발현·증식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힘
- PINK1 유전자가 세포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노치 유전자와 결합해 신호전달과정에서 조절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힘

01 국내외 뇌 과학 연구 학술 동향

2. 임신 중 병원내 감염으로 자폐아 출산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December 2013

Maternal Infection During Pregnancy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Ousseny Zerbo, Yingge Qian, Cathleen Yoshida, Judith K. Grether, Judy Van de Water, Lisa A. Cro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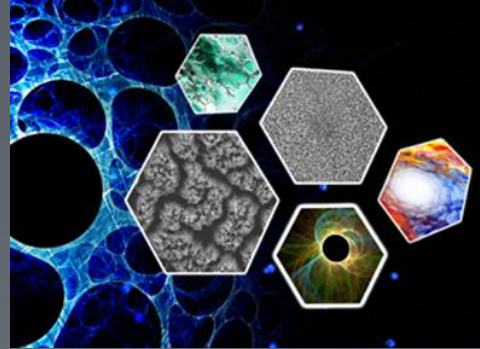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13)

- 여성이 임신 중에 간혹 일어나는 병원내 감염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
- 미국 카이저퍼머넌트연구소 연구진은 1995~1999년 태어난 자폐아 407명, 정상아 2075명과 이들 산모의 임신 중 의료 데이터를 2년간 분석한 결과, 임신 중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생식기, 요도, 양수 등)되었던 여성은 자폐아를 출산할 위험이 5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 임신 3~6개월에 병원에서 감염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자폐아가 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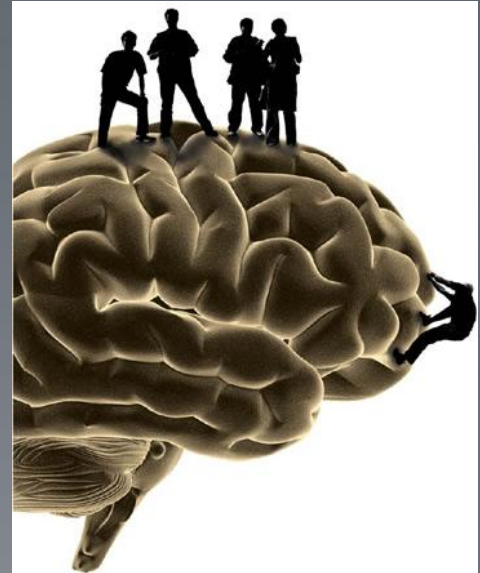
1. 뇌 속 투명하게 보는 법 개발연구자, 올해의 발견으로 선정

- 미국 MIT대 정광훈교수는 죽은 생쥐의 뇌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CLARITY)을 개발. 빛의 투과를 막는 뇌 세포막의 기름 성분을 투명한 겔로 대체해 뇌의 구조와 신경세포 연결망을 볼수 있게 함. 이 결과는 사이언스지의 올해의 발견 중 하나로 선정.
- 출처 :중앙일보



2. 연구과제 신청 간소화

- 앞으로 연구자들이 과제를 신청할 때 매번 해당 부처의 과제신청시스템을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연구개발에 관한 약 100만건의 정보를 가진 지식포털 NTIS를 통해 부처별 과제신청시스템으로 바로 찾아 갈 수 있는 '범정부 과제신청서비스'를 27일 오픈 예정
- 출처 :아시아 경제



감사합니다

